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제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9.27

2022년도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의료급여)는 52,932천 명으로 전년 대비 0.006% 증가함. 202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0천 명으로 전년 대비 0.004% 감소함. 2022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은 134만 3,172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함. 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건보공단, 저소득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9.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함. 기존에는 소득(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는 1,500만 원 이하)), 세대(세대원 중 30·40대 있을 시 결손 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제2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10.04

2022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76조 7,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고, 급여율은 74.9%로 나타남. 2022년 보험급여비는 81조 5,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함. 2022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는 종합병원급이 26조 3,310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4.3%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3.0% 증가함...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상생,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09.24

금융감독원은 제2회 「상생, 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23. 8. 31)하고, 8개 상품을 우수 사례로 선정함. 특히, 금번 제2회 공모에는 인터넷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등 제1회 공모 시 지원하지 않았던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우수사례로 지원한 금융상품은 총 25개로 제1회 공모...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이 강화되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금융감독원 2023.09.25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함.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023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금융감독원 2023.09.26

'23. 6 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477.5조 원으로 전년 말(3,418.2조 원) 대비 소폭(59.3조 원) 증가(+1.7%)함. '23. 상반기 중 당기순이익은 13조 6,238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 3,776억 원) 대비 1조 2,462억 원 증가(+10.1%)함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 1년간의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금융감독원 2023.10.03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밝은 내일을 위해 정부-금융기관이 뭉쳤다

금융위원회 2023.09.20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 기관 그리고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 등)이 2023. 9. 20(수) 오전 11시 30분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함.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2023.10.06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토록 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10.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09년)한지 14년만에 관련 법안이 통과한 것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수가 제도(상대가치점수) 개편

보건복지부 2023.09.21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함.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탐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함.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평생을 함께할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 2023.09.20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힘.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됨.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만에 동결

보건복지부 2023.09.26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화) 14시에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
여,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함.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
('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만임.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2023.09.26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힘.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2023.09.27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힘.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입법 자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2023.09.19

현행법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들은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적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023.09.21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을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2023.09.26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관련 신고제 도입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2023.09.26

현행 보험실무상 손해사정서가 서면으로만 작성·송부되고 있어 손해사정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가 전자

문서로 송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 2023.09.26

최근 보험금 취득을 위한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